

동산동·모현동 새뜰마을사업 응모

익산시, 국토부 공모

익산시는 동산동과 모현동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하는 새뜰마을사업에 응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도시가스,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

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지역생활권 사업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모현동과 동산동, 인화동 지구의 취약지역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지역은 구 시가지로 학교와 공·폐가 많고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많아 재해 및 범죄에 취약하다. 시는 우선 동산동지구 해방촌지역과 모현동지구 옥창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 응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평가를 통해 올해 3월 말에 선정·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의 취약한 생활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15년 KTX익산역 관사마을, 2016년에는 동산동 월담지역이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 /뉴시스

군산시 유관기관 월명초교 통학로 개설 행정력 집중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이 3월 개교하는 월명초교 통학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13일 오전 수송동 한라비발디 정문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주광순 교육장, 신영자 군산시의회 경건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나서 월명초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주민협조요청 활동을 펼쳤다.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11일 수송동 주민센터에서 군산시장과 군산교육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들과 한라비발디 1·2단지, 미장아이파크 주민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통학로 개설을 위해 공동주택 특성상 아파트 전체 입주인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한라비발디 1단지에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민동의 절차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이 월명초교 통학로 확보에 기울이고 있다.

를 실시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과 주광순 교육장은 "한라비발디 입주주민대표회의에서

통학로 개설에 긍정적으로 협조해 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익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치활동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 진행된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 차량이다.

상승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동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익산시는 이달 중 차량 8083대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해경, 해양사고예방 도서지역 선박 항로 점검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역 내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와 연도를 찾아 도서지역 항포구와 연안해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정원 서장을 비롯해 해경 관계자들은 이날 소형 경비정 편으로 전용부두를 출발해 인근 김 양식장 분포해역을 중심으로 양식 어민들의 조업실태와 주요 선박 통행로의 안전위험요소를 점검했다.

또 연도와 개야도 출장소를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한 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도서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의 많은데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양경찰이 적극적으로 인권보호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의 해양사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원 서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민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

지고 조업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올 한해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항공지상조업사 훈련생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항공지상조업사 과정 운영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신산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인 '항공지상조업사'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차 교육생 20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하며 8주간 하루 4시간씩 총 160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운영된다. 항공지상조업사 과정은 공항의 램프 지역(RAMP: 여객의 탑승·하기, 화물의 적재, 항공기의 정비점검, 연료보급 등을 위해 설치된 비행장의 일정지역으로 터미널 빌딩 및 정비지구에 인접한 지역)에서 화물조업 운영 계획 및 안전품질, 생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항공

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고용노동부와 군산시가 협약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다.

훈련생 자격조건은 군산시에 주소로 둔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이며 졸업직전학기인 졸업예정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고용위기기업종 실직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우수 훈련생에게는 훈련과정을 마치고 동시에 샤프에비에이션케이(주)에 취업하며 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450-132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경찰서, 올 아동안전지킴이 94명 선발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13일 2019년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을 위한 2019년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을 위한

총 94명 선발에 237명이 지원(경쟁률 3:1)했고 군산보건소(소장 전형태)와 협업체 전문 보건인력을 활용한 혈압 측정지원으로 보건소 직원 5명을 배치했으며 외부면접위원을 4명 선정했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 75세 이하였던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마련한 공인된 체력측정방법

을 심사 때 적용하게 된다.

면접 및 체력검정을 통과해 합격한 아동안전지킴이는 오는 3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약 10개월간 관내 초·중·고 주변에 배치돼 학생들의 등하교시 보호활동 및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안상엽 서장은 "따뜻한 관심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망 구축에 아동지킴이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박물관 화재 예방 화재안전특별조사

익산소방서는 박물관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익산소방서는 소방·건축·전기 분

야 전문가와 보조인력 등 20명으로 구성된 6개 조사반을 통해 박물관 등에 대한 조사를 전개한다. 중점점검 대상은 가스계 소화설비 유지관리, 전시장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건축·가스분야 유지관리 등의 법령 준수 상태다. /뉴시스

군산시선관위, 초등학교 임원선거 지원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13일 군산중앙초등학교 전교 학생임원선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지원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출력한 투표용지와 투표함, 기표대, 기표용구 등을 제공하였으며, 미래의 유권자인 초등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선거문화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명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